

전남고 광승우, 광주지방기능경기대회서 金 ‘눈길’

‘의상디자인’ 직종 수상 영예... 9월 전국대회에 광주대표 출전 자격 부여

광주지역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남고등학교 광승우(3학년) 학생. 광 군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2025년 광주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의상디자인’ 직종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광주지역 고등학생은 광 군을 포함해 총 89명이지만, 유독 광 군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문 기술교육을 받지 않은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라서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역 숙련 기술인들이 실력을 뽐내는 자리로, 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기능 훈련에 특화된 선수들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도 참가자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은 광 군이 유일했다.

특히 의상디자인 직종은 짧은 시간에 옷을 완성해야 하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해 대부분 대학생이 수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 군은 바쁜 학사일정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 학원, 공장, 개인 작업실 등을 오가며 대회를 준비했다.

이번 대회 수상으로 광 군은 상장·메달·상금을 받는 것은 물론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광 군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제 이름을 건 의상디자인 브랜드를 창업하고 싶다는 꿈을 생각해 바늘을 다시 잡았던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인젠가 세계기능올림픽 의상디자인 분야에서 정상 자리에 올라 최고의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고등학교 조난라 교장은 “이번 수상은 단순히 입상의 의미를 넘어 인문계 학생도 충분히 기능 경쟁력과 열정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전남고 광승우 학생이 지난 7~11일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 ‘의상디자인’ 부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승우 학생은 올해 입상한 광주 학생 89명 중 유일한 일반계 고학생이다.

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 재능과 열정이 빛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년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고등학교는 직업 및 대학 연계 프로그램과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미래와 학업을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염선호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영광농산물 TV홈쇼핑 방송지원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민)는 4월 15일(화) 영광농업협동조합(대표 정경수)과 「영광농산물 TV홈쇼핑 방송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영광농산물 TV홈쇼핑 방송지원은 TV홈쇼핑을 통해 고구마와 고춧가루 등 영광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통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한수원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영광지역 농가에 1억3천8백만 원 규모의 TV홈쇼핑 방송비 및 배송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상품 구매 촉진과 유통비 부담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한빛본부는 2020년부터 본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약 15억8천만 원의 TV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 매출을 올려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한빛본부는 양파, 팥, 구마, 공동방제 농약 드론 살포 등에도 6천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울 계획이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해 지역 상생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에 HD현대삼호 직원 열기 후끈

영암군, 기업 홍보부스 운영으로 2,600만원 모금... 올해 모금 2억 돌파

영암군의 기업을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에 HD현대삼호 직원들이 뜨거운 기부행렬로 호응했다.

15~16일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역 앵커기업인 HD현대삼호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기업 임직원에게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리고,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과 특별 이벤트 혜택까지 전한 것.

올해 2월 영암군과 HD현대삼호는 만나 기업 내 홍보부스 운영을 약속했고, 이틀간의 행사는 그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HD현대삼호 직원 260명은 영암군의 고

향사랑기부 홍보부스에 방문해 2,600만원을 기부했다. 기업 직원들의 기부 열기에 화답해 영암군은 현장기부자에게 특별 이벤트도 진행했다.

행사 기간 동안 영암군은 10만원 이상 기부자 중 토틸렛 추첨 이벤트로 하루 1명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도 증정하고, 영암달마지쌀 1kg, 고구마 누룽지 말랭이 세트, 보조배터리 등도 나눠줬다.

HD현대삼호 직원들의 기부로 영암군이 모금한 올해 누적 고향사랑기부금도 2억원을 돌파해, 지난해보다 2개월가량 빠른 성과를 올렸다.

영암군은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가 기



업 직원들에게는 세액공제·답례품 등 혜택을 주고, 영암군에게는 지역발전 기금을 더 폭넓게 확보하는 장이라는 사실을 이번 행사로 확인했다.

이영주 영암군 홍보전략실장은 “시행 3년 차인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기업 직원들이 많다. 올해 처음으로 기업을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해 직원과 지역 모두 윈윈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기업으로 찾아가서 더 많은 직원들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희선 기자



고흥군, ‘농촌 왕진버스’ 의료 공백 해소에 앞장

고흥읍 주민 300여명 수혜, 의료 공백 없는 행복 고흥 구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5일 고흥농협과 협력하여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지자체와 농협이 협업해 의료 및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의료진들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고흥농협과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이 협력해 고흥군민회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농작업 질한 치료, 한방진료, 검안 검사, 톨보기 처방 등의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의료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과 상담도 함께

진행하여 농민들의 건강 의식을 높이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기여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농동농협에서 도양읍, 도덕면 거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왕진버스를 운행해 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풍양농협 등 5개 지역농협은 농번기가 끝나는 7월부터 왕진 의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의료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협 및 병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보성군 조성면여성자원봉사회 밀반찬 나눔 봉사

보성군 조성면여성자원봉사회(회장 김미숙)는 지난 14일, 조성면 동로현복지센터에서 ‘사랑 한끼, 마음 두끼! 영양 가득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조성면 여성자원봉사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양태짬, 파리고추 멸치볶음, 쥐포 볶음 등 밀반찬 3종을 정성껏 조리하고, 조성면 관내 취약계층 50

가구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조성면 여성자원봉사회 김미숙 회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만든 반찬을 통해 마음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봉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